

조선 후기 鍼無補法の 인식에 대한 고찰

윤기령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사학교실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Theory that Acupuncture has No Reinforcement Method during Late Joseon Period

YUN Ki-ryoung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of the royal family and scholars, focusing on the records of the royal family and literary collecti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attempted to present the process of accepting this content in Korea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medical documents and other literature.

The perception of this content in the late Joseon Dynasty can be said to be a characteristic to the history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the Joseon period. This seems to have occurred after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when both acupuncture and medicine were commonly performed on the king.

This content was generally recognized by Joseon's scholars because it had been in books read by the scholars before it was mentioned directly in the medical book. Korean medical books were influenced by Uihakyimmun, and this content continued steadily in various medical books. Since the books containing this content were test subjects for the medical exam, it can be assumed that they were generally accepted by docto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 words : Acupuncture has no Reinforcement(鍼無補法), Seungjeongwonllgi(承政院日記), Uihakyimmun(醫學入門), acupuncture and moxibustion(침구), late Joseon Dynasty(조선 후기)

I. 서론

우리나라는 침구 분야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素問·異法方宜論』과 『山海經』을 통해 고조선 시대에 砭石과 箴石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삼국 시대에는 일본인이 고구려와 신라에서 침술을 배웠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 효소왕 때에는 『鍼經』과 『明堂經』 등을 가르쳤으며 고려시대에는 醫鍼史의 관리를 두었다. 조선시대에도 취재에서 침구를 전문으로 하는 침구의를 따로 뽑았다.

조선시대에 발전된 침구이론과 임상에 대한 기록들은 각

종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를 통해 왕실에서 이루어졌던 침구 치료의 실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대부들의 문집 속에도 침구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논자는 이러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조선 후기에 鍼無補法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왕실 치료기록에 대한 많은 의학사적 연구가 있었지만 주로 약치방과 차 등 식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침구 치료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왕실기록의 침구 치료 관련 기존 연구는 『承政院日記』에 나타난 鍼灸擇日을 살펴본 연구¹⁾가 있었는데, 침구를 시행하는吉日과 忌日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承政院日記』에 나타난 왕실의 阿是穴을 살펴보는 연구²⁾가 있었다. 특정 왕의

접수 ▶ 2022년 10월 31일 수정 ▶ 2022년 11월 09일 채택 ▶ 2022년 11월 10일
교신저자 ▶ 윤기령,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Tel : 043-649-1342 E-mail : kgody@naver.com

1) 오준호, 차웅석, 김남일. 「『承政院日記』를 통해 본 鍼灸擇日 활용 방법」. 한국사학회지. 2009;22(1):15-24.

2) 정지훈. 「『승정원일기』를 통해 살펴본 조선 왕실의 阿是穴 활용」. 한국사학회지. 2021;34(1):75-82.

침구 치료를 살펴보는 연구는 숙종의 中腕穴에 행해진 受灸事에 대한 연구³⁾가 있었다. 이 밖에 인조 때 주로 활동했던 이형익의 燔鍼術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⁴⁾.

鍼無補法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鍼無補法論을 비판하는 연구⁵⁾가 있었으며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鍼無補法の 의미를 고찰한 연구⁶⁾가 있었다.

조선시대의 여러 기록을 통해 조선 후기 鍼無補法の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따라서 본자는 왕실기록과 문집에 나타난 鍼無補法 관련 원문에 대하여 검색을 통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먼저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와 문집 기록을 중심으로 왕실과 사대부들의 鍼無補法の 인식을 살펴보고, 국내외 의사와 기타 문헌 등을 통해 鍼無補法이 국내에 수용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본론

1. 왕실 기록에서 보이는 鍼無補法の 인식

왕실 기록인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를 살펴보면 鍼無補法에 대한 내용은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영조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부터 각각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宣祖

『朝鮮王朝實錄』의 선조 28년(1595년) 9월 28일 기사에 서는 선조가 “두통은 요즘 덜하나 정신이 아예 없으니 아마

도 지탱하지 못할 듯하다.”라고 하자 유성룡이 “침은 사함만 있고 보함이 없으니 아마도 여러 번 맞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듯합니다.”라고 하였다⁷⁾. 유성룡은 뛰어난 문신이기도 하였지만 1600년에 『鍼灸要訣』을 지은 儒醫이기도 하였다. 선조 31년(1598년) 9월 22일 기사에서는 약방의 도제조 유성룡과 제조 홍진, 신식이 추운 날씨에 운수로 목욕하는 것을 금하기를 아뢰자 선조는 목욕과 침구를 하는 일은 의관들이 으레 금하는 말이라고 하였다⁸⁾. 이를 통해 약방의 도제조이자 영의정으로 있었던 유성룡이 선조에게 꾸준히 침의 瀉法에 대해 경계하였고, 의관들 또한 이에 따라 침구를 자주 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仁祖

『朝鮮王朝實錄』의 인조 이후의 기사에서는 鍼無補法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承政院日記』에서 풍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왕실기록의 아시혈의 예⁹⁾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또한 침구에 대한 기록이 선조 이후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에서 달라짐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인조 12년(1634년) 11월 19일 기사에서 약방의 도제조 윤방과 부제조 이성구는 인조가 감기 후의 발생한 내상으로 인해 表虛가 되고 풍한이 쉽게 들어와 한열왕래의 증후가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금기해야 하는 발산하는 종류에 대해 언급하면서 예를 드는 것은 인동차와 함께, 사함이 있고 보함이 없는 침이다. 따라서 침을 쓰더라도 소시호탕에 보하는 약을 더한 처방과 병용해야 한다고 아뢰었다¹⁰⁾.

인조 21년(1643년) 8월 26일 기사에서는 燔鍼의 受鍼을 정지하기를 청하는 약방과 청을 거절하는 인조의 모습이 나타난다¹¹⁾. 인조는 이형익을 신임하고 燔鍼의 기술을 받

3) 김동욱, 고대원, 김현경, 차용석, 안상우. 「肅宗의 中腕穴 受灸事 연구 : 승정원일기 약방기록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5;28(4):121-137.
 4) 오준호, 강연석, 차용석, 김남일. 「李馨益 燔鍼의 계통과 성격」. 대한한의학회지. 2009;30(2):46-55.
 5) 李炳幸. 「鍼 無補法論에 對한 反證論」. 대한한의학회지. 1970;7(1):33-35.
 6) 윤기령, 백유상, 장우창, 정창현. 「鍼無補法の 의미에 대한 考察 : 黃帝內經의 補瀉法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8;31(2):141-153.
 7) 「洪進啓曰 頃者, 伏聞聖候患疾, 氣不平安, 不勝悶慮. 上曰 子乃病病, 頭痛近減, 而精神全耗, 恐不得支持也. 成龍曰 鍼, 有瀉無補, 恐不合累受也.」(朝鮮王朝實錄. 宣祖 28年(1595年) 9月 28日.)
 8) 「醫官等, 沐浴鍼灸之事, 例爲禁之,」(朝鮮王朝實錄. 宣祖 31年(1598年) 9月 22日.)
 9) 정지훈. 「『승정원일기』를 통해 살펴본 조선 왕실의 阿是穴 활용」. 한국사학회지. 2021;34(1):77.
 10) 藥房問安. 答曰, 知道. 藥房都提調尹昉, 副提調李聖求啓曰, 因入侍御醫, 概聞聖候, 則初因感冒, 有乍寒乍熱之症云. 仍與李惟聖·閔綱, 及諸御醫等商議, 則以爲凡人宿疾, 必因感冒後發內傷, 乃自上宿疾也. 內傷則表必虛, 風寒易入, 風寒外襲, 則熱氣內鬱, 此所以爲寒熱往來之候也. 類進忍冬茶, 則過於發散, 表氣益虛, 針之爲道, 有瀉而無補, 則是亦發散之類也. 當此寒互之節, 一以發散爲主, 恐非萬全之術, 不如兼用小柴胡湯, 加當歸·白芍藥·酒炒白朮各一錢, 陳皮·知母鹽酒炒·羌活各七分, 連進四五貼, 使鍼藥, 竝奏其功之爲得云. 誠有所見, 恐不可忽也. 前承聖教, 雖以服藥無效爲教, 而臣等不任區區之情, 惶恐敢稟. 傳曰, 依啓. (承政院日記. 仁祖 12年(1634年) 11月 19日.)
 11) 藥房都提調左議政臣沈器遠, 提調戶曹判書臣李溟, 副提調行都承旨臣金培啓曰, 伏未審, 聖候調攝, 若何? 諸症漸減之候, 水刺·寢睡之節, 比昨如何? 且今番玉候未寧之後, 受鍼葉燔, 竝計多至十六度, 葉燔雖殊, 其用穴則一也, 不可謂兩件之治也. 鍼家雖有補瀉之法, 古方亦云, 鍼有瀉無補. 又曰, 刺

은 기록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약방에서는 葉鍼과 燔鍼 모두 침의 범주에서는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침가에 보사하는 법이 있지만, 옛 의방에서도 ‘침은 기운을 쏘아 내기는 하나 보하지는 못한다’라고 했고 또 ‘털끝만큼 찢러도 기운은 차의 바퀴만큼 쏟아진다’라고 했으니, 침은 일시적으로 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연달아 침을 맞아서 원기를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여 침을 맞는 것을 우선 정지하고 調養靜攝하여 병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인조 21년(1643년) 『承政院日記』의 7월부터 10월까지의 여러 날과 仁祖 27년(1643년) 5월 3일 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인조가 침을 맞은 상황에서 침을 맞은 후에 생맥산 1첩을 복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仁祖 21년(1643년) 10월 12일과 13일에 인조는 唇腫으로 葉鍼을 맞은 후에 생맥산을 복용하고 있는데¹²⁾, 생맥산은 唇腫을 치료하는 처방이 아니다. 생맥산은 복용하면 사람의 기력으로 하여금 뺨처럼 솟아나오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처방이다¹³⁾.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은 이 시기 鍼無補法을 의관들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침을 맞으면 그에 따른 기가 사하는 상황을 우려해 생맥산을 받들어 올린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인조 22년(1644년) 2월 2일 기사에서는 인조에게 의관이 이형익이 “약 맛이 쓰더라도 이는 바로 속을 다스리는 좋은 약입니다. 독한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로우니 지금까지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마시고 많이 드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침을 지금 이미 14회나 맞으시어 제조와 신료들이 많이 맞으신다고 걱정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침은 사하기만 하고 보하지는 않으므로 많이 맞아서 안 됩니다.”¹⁴⁾라고 하여 약과 침을 대비하였는데, 燔鍼術로 유명했던 이형익조

차 鍼無補法에 대하여 인조에게 아뢰는 기록이 나온다.

인조 23년(1645년) 11월 20일 기사에서 약방의 제조 김육과 부제조 김광옥은 세자가 發汗이 과다하여 表가 虛하므로 有瀉無補한 침을 맞는 것에 대해 더욱 상의를 하여 정해야 한다고 아뢰는 기록이 나온다¹⁵⁾.

인조 27년(1649년) 5월 4일 기사에서는 약방에서 인조가 기가 심하게 허약한 상태이므로 다음날 葉鍼과 火鍼을 모두 맞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다¹⁶⁾. 증상이 나타나는 때에 임하여 火鍼을 맞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에서 볼 때 특히 葉鍼의 瀉法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효종

효종 4년(1653년) 7월 23일 기사에서는 약방에서 慈殿의 증후에 대해 기가 약하므로 有瀉而無補한 침을 쓰기도 하는 火鍼을 쓰는 것이 낫다고 아뢰는 기록이 나온다¹⁷⁾.

4) 현종

『承政院日記』에서 鍼無補法과 관련한 현종의 기록은 주로 眼病과 관련하여 침을 맞는 과정에서 나온다. 현종 1년(1660년) 2월 27일 기사에서는 약방에서 효종이 앓고 있는 暴暗의 병을 哀傷이 심하여 기혈이 허함으로 인해 풍열 담화가 발한 것이라고 진단하였기 때문에 연달아 침을 맞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素問의 ‘衰其大半而止’와 소동과의 “鍼如麥芒，出氣如輪。”을 인용하여 침자로 인해 기혈이 상한다고 하여 진찰을 한 뒤에 상의해서 정해야 한다고 아뢰는 기록이 나온다¹⁸⁾.

현종 2년(1661년) 3월 16일 기사에서는 약방에서 효종

之毫芒，瀉如車輪，蓋鍼有一時劫病之功，而不可以彌月連受以致眞氣之損泄也。 況此燔法，歷世罕用之術，當初事有不得已者，臣等之意，受鍼姑爲停止，益加調養靜攝，則熱勢自當退聽，而諸症亦隨而減歇。其根柢之所在，則不可專攻急治，與諸御醫等，更爲從容商確，出入諸方，參考古今，以定對證之良劑，不以時月爲期，而久久勉進，以爲積功祛根之地，似爲宜當。諸御醫所見皆如此，臣等煎慮惶恐之至，敢此問安，竝爲仰稟。答曰，諸證頗似漸減，燔鍼今若停止，則不無功虧一簣也。(承政院日記。仁祖 21年(1643년) 11月 19日.)

- 12) 受鍼穴處，右足部厲兌·內庭·大沖各一穴，右手部合谷·神門各一穴。葉鍼受鍼後，生脈散一貼。(承政院日記。仁祖 21年(1643년) 10月 12日.)
受鍼穴處，右足部厲兌·內庭·大沖，右手部合谷·神門·尺澤，並葉鍼受鍼後，生脈散一貼。(承政院日記。仁祖 21年(1643년) 10月 13日.)
- 13) 허준 지음.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하동·동의보감출판사. 2005:551-552. “麥門冬 二錢，人參·五味子 各一錢。水煎，夏月代熱水飲之。或加黃芪·甘草 各一錢，或加黃柏 二分服之，則令人氣力涌出生用。『入門』”
- 14) 又啓曰，藥味雖苦，此乃治內之良劑，毒藥苦口，利於病，慎無功虧一簣之患，多進御，宜當。受鍼今已十四巡，提調及臣僚等，無不以多受爲慮。凡鍼有瀉無補，不可多受，何以爲之？(承政院日記。仁祖 22年(1644년) 2月 2日.)
- 15) 且世子發汗過多，極其表虛，凡鍼有瀉無補，恐有所妨，招集諸鍼以醫，更加商議以定，何如？(承政院日記。仁祖 23年(1645년) 11月 20日.)
- 16) 藥房口傳啓曰，臣等與李馨益詳議，則李馨益以爲，近日玉候，不得水刺，氣甚虛弱，明早十三穴葉鍼，臨發時火鍼[鍼]，一日再度，不宜於虛弱之時，不如臨時火鍼[鍼]之，爲宜也。敢此仰稟。答曰，知道。(承政院日記。仁祖 27年(1649년) 5月 4日.)
- 17) “三啓曰，退與御醫及柳後聖等商議，則皆以，急治元症，無如牛黃瀉心湯，而但專主降瀉，不無所妨於元氣。加減溫膽湯，元入黃連酒炒，三貼劑進，症候稍定之後，間問進御，以爲補益之地，鍼與火鍼，間于李馨益，則藥針，主於瀉，火鍼，補於人，若言用針，則氣弱之時，有瀉而無補，以火鍼爲主，似當云。”(承政院日記。孝宗 4年(1653년) 7月 23日.)
- 18) 素問所謂衰其大半而止，蓋戒治之之或過也。鍼如麥芒，出氣如輪，一刺之施，氣血之傷，宜如何哉？可瀉則瀉，固也，不當瀉，則何可過也？今日先爲診察然後，或受或停，商議以定，則似無未盡之患。臣等無任憂慮，敢來問安。(承政院日記。玄宗 1年(1660년) 2月 27日.)

이 원기가 허약하므로 有瀉無補한 시침보다는 약을 써야 한다고 아뢰는 기록이 나온다¹⁹⁾. 또한 현종 5년(1664년) 6월 10일 기사 역시 정유성이 왕이 눈을 뜨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 극히 더운 여름에 주리가 열려 있을 때에 연달아 有瀉無補한 침을 맞는 것이 다른 질환이 생길까 염려하는 기록이 나온다²⁰⁾.

현종 5년(1664년) 8월 7일 기사에서는 불규칙한 眼病의 증상에 침과 약을 대비하여 침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지만 有瀉而無補하고, 약은 입에 쓰지만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²¹⁾.

5) 숙종

숙종 42년(1716년) 8월 25일 기사에서는 약방에서 숙종의 여러 증상에 대하여 모든 어의들과 침의들이 사하는 시침을 자주 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는 기록이 나온다²²⁾.

숙종 44년(1718년) 1월 24일 기사에서는 여러 의관들이 입진하여 숙종의 증상에 대하여 진단하고 치료법을 상의하는 기록이 나온다. 의관 김득영이 침은 有瀉無補하므로 滋補하는 약을 복용한 후에 천천히 침을 맞아야 한다고 말하였다²³⁾.

그로부터 열흘 정도 후 숙종 44년(1718년) 2월 4일 기사에서는 기록이 비교적 자세하다. 먼저 의관이 아니었던

司勇 민정환이 방서의 “氣出如車軸, 氣出如車輪.”을 언급하면서 受鍼은 기혈을 모손시키므로 맞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정시제, 유성징, 조경기 등 여러 의관들도 민정환의 의견에 동의하며 숙종의 안질은 간신의 經血이 부족함으로 인한 內障이기 때문에 보법이 없는 침을 맞아서 안 된다고 아뢰는 기록이 나온다²⁴⁾.

6) 영조

영조는 『承政院日記』에서 鍼無補法 관련 기록이 나오는 마지막 왕이다. 재위기간이 길었던 만큼 여러 기사가 보인다.

영조 즉위년(1724년) 9월 20일 기사에서는 침을 맞고 祭奠에 참가하려는 영조에게 도제조 이광좌가 의관이 말한 “鍼孔如毫芒, 氣出如車輪.”을 인용하여 기가 빠져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鍼孔으로 풍을 받을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기록이 나온다²⁵⁾.

영조 5년(1729년) 6월 1일 기사에서는 도승지 이정제가 首醫의 말을 인용하여 有瀉無補한 침을 맞는 것을 걱정하는 기록이 나온다. 영조 또한 더운 여름에 침을 맞을 것을 우려했는데, 우의정 이태좌 또한 의서의 “其入如芒, 其出如車.”를 인용하여 더운 여름에 주리가 열려 있을 때 여러 차례 침을 맞는 것을 우려하는 기록이 나온다²⁶⁾.

영조 5년(1729년) 8월 2일 기사에서는 영조가 안질이

19) 且昨今兩日, 以拘忌, 受鍼停止矣. 明日仍爲受鍼當否, 議于諸醫, 則皆以爲, 凡人施鍼, 有瀉無補, 況聖上久在哀疾未寧之中, 元氣虛弱之餘, 許多穴道, 連次施鍼, 屢日不止, 則快效未收, 損害必多. 眼患若有少差之效, 則似當姑爲停鍼, 以藥力仍爲專治宜當云. 非但醫官之意如此, 群下之情, 亦以受鍼過度爲慮, 何以爲之? 敢此竝稟. 答曰, 知道. 受鍼當否, 明日議定, 可也. (承政院日記. 玄宗 2年(1661년) 3月 16日.)

20) 鄭維城曰, 自上開眼, 略無艱澁, 當此夏缺極熱, 漢理皆虛之時, 連受有瀉無補之鍼, 恐有他患矣. (承政院日記. (承政院日記. 玄宗 5年(1664년) 6月 10日.)

21) 臣等, 與鄭後啓諸御醫反復商議, 則餘熱已差, 而眼候加減無常, 蓋緣未能祛根而然也. 鍼則雖有一時之效, 每患有瀉而無補, 藥則雖曰苦口之患, 得其當劑, 可以祛根. 伏未知即今症候, 比昨漸減乎? 必須明白下教, 然後或藥或鍼, 可以議定, 臣等不勝憂慮, 敢來問安, 竝此仰稟. 答曰, 知道. (承政院日記. 玄宗 5年(1664년) 8月 7日.)

22) 諸御醫·鍼醫等皆以爲, 施針終是有瀉, 頻頻受鍼, 恐有所妨云云. 臣等與諸醫入診, 詳察症候, 受鍼當否, 更爲稟定, 宜當, 不勝終宵憂煎, 敢此問安, 竝爲仰稟. (承政院日記. 肅宗 42年(1716년) 8月 25日.)

23) 自上雖欲受鍼, 而時節尙早, 稍待來月, 可也. 得英曰, 非但時節尙早, 鍼有瀉無補, 方進滋補之藥, 豈可受鍼以瀉之乎? 丸藥及醞釀畢進後, 徐爲之, 可矣. 諸醫所達皆然. (承政院日記. 肅宗 44年(1718년) 1月 24日.)

24) 頤命曰, 挺漢以爲, 今方進御醒醐, 以滋補爲主, 此時不宜受針云, 更問于諸醫, 何如? 上曰, 問之, 可也. 挺漢曰, 方書云, 氣出如車軸, 氣出如車輪, 夫人之有生, 皮裡藏血, 血生氣, 氣之於人, 重矣. 醫家有服氣延年之法, 龜能吸氣, 故壽, 耗損血氣, 莫甚於受鍼, 而聖上以子午流注之法, 爲能瀉熱, 故或意其得效, 而欲試之, 然, 上候諸症, 已至多年, 病久則虛, 理之常也. 且春秋向衰之時, 尤不可容易受鍼, 而人之一身, 血爲之主, 損血之道, 豈可爲之乎? 時梯曰, 挺漢所達之言, 皆理氣之說, 固是且好矣. 凡眼疾赤澁疼痛, 羞明怕日等外障之症, 則可以鍼治, 而內障則難以鍼法得效矣. 聖患已至多年, 雜試諸方, 未見其效, 自上欲試鍼治, 而既無他必治之術, 故臣等雖知其無益, 而或冀萬一之效, 勉勉奉行矣. 聖曰, 眼患有內外障之別, 故治法亦異, 今上候, 實由肝腎經血不足而生, 則非受鍼可治, 而前既連試蔑效矣. 今效更試之舉, 臣決知其無益也. 時梯曰, 上候血虛火盛而發, 而鍼法不能瀉實補虛, 故醫書云, 一水不能勝五火, 又云, 虛人不可鍼刺, 停止, 宜矣. 趙慶基曰, 上候眼患, 乃五臟精氣不足以生, 而鍼法有瀉無補, 停止, 宜矣. 瑞曰, 內障眼疾, 乃心肝經血虛火重而致然, 故頃日受鍼時, 小臣固已爲問矣. 凡眼病之由虛而發者, 無鍼補之法, 停之是也. 占曰, 聖患已久, 氣血虛弱, 而即今方進御醒醐, 以滋補爲主, 不宜受鍼也. 吳重高·方慶夔·金壽峯·卞三術等皆曰, 臣等之意, 亦與諸醫同矣. (承政院日記. 肅宗 44年(1718년) 2月 4日.)

25) 光佐曰, 曾聞醫官之言, 鍼孔如毫芒, 氣出如車輪. 卽今氣候積敗之時, 不可不慮. 受鍼之日, 則祭奠勿爲參臨, 若何? 上曰, 不然. 向年累次受鍼, 而連爲洗水, 亦無所害, 豈可以此不參祭奠乎? 光佐曰, 此非獨臣言, 醫官之言, 亦如此. 受鍼日則夕奠勿爲入參, 似好矣. 上曰, 姑觀前頭當爲之矣. 光佐曰, 鍼孔受風可慮, 醫言着吐手爲好云矣. 上曰, 此則已欲爲之矣. 肇曰, 既受鍼矣, 勞動風傷可慮. 祭奠哭泣, 則傷損必多, 受鍼之時, 則停止參祭, 似好矣. 上曰, 提調之意, 予豈不知? 如曰受鍼, 而參祭有妨云, 則停鍼, 可也. 不可不參之意, 已言于都提調矣. 前頭當自量爲之矣. 光佐曰, 明日受鍼時, 亦以吐手, 置于前, 鍼訖卽着, 似好矣. 上曰, 依爲之. (承政院日記. 英祖 卽位年(1724년) 9月 20日.)

26) 廷濟曰, 年少諸醫, 雖主受鍼, 首醫二人, 以爲有瀉無補云, 故以此持難矣. 上曰, 冬間諸症, 今則少減, 而開睫視物, 猶不如前, 此是過重痛之後, 餘症

있는데, 정혈이 부족하여 精彩가 부족한 증상이 있으므로 침을 맞아야 하는지 맞지 말아야 하는지 의견을 나누는 기록이 보인다. 침은 有瀉無補하므로²⁷⁾ 上氣하는 증상이 뚜렷한 경우가 아니라면 침을 맞지 말아야 한다는 의관의 의견에서 鍼無補法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이밖에 영조 6년(1730년) 5월 23일 기사에서도 도제조 홍치중이 鍼醫의 말을 인용하여 침의 有瀉無補를 언급하였으며²⁹⁾ 영조 10년(1734년) 12월 20일 기사에서는 영조 본인이 이전의 침 치료가 효과가 있었지만 鍼의 有瀉無補를 언급하며 연말에 침을 맞기보다는 침과 뜸을 번갈아 맞고자 한다³⁰⁾. 이를 통해 왕 또한 침의 사하는 특성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조 13년(1737년) 5월 27일 기사에서는 지사 송진명이 “鍼孔如芒, 氣出如輪.”을 언급하면서 침뿐만 아니라 뜸 또한 有瀉無補하므로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 여러 번 시행하면 도리어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길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하였다³¹⁾.

영조 17년(1741년) 9월 25일 기사에서는 영조가 慈殿의 몸 상태에 대해 의관과 상의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전 기사를 보면 영조의 어머니는 감기에 걸려 머리의 阿是穴에 散鍼을 썼다. 이에 영조는 慈殿이 비록 침을 맞고 싶어하지만 연속으로 침을 맞아 옥체가 상하고 기가 疏洩, 즉 빠져나가는 것이 지나침을 걱정을 하며 잠시 중지하고 싶다고 한다.

이에 의관 김응삼 또한 나이가 많고 기혈이 쇠하였으므로 계속 침을 맞지는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여러 의관들 또한 이에 동의하며 침을 잠시 중지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특히 의관 강위명은 병이 전적으로 풍열이라 비록 散鍼을 썼지만 이미 3일에 이르러 有瀉無補에 이르고 諸陽之會인 머리에 厥逆이 있을까 염려한다고 언급하면서 침을 잠시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³²⁾ 散鍼이라는 것은 정혈이 아닌 곳의 피부에 얇게 찌르는 것으로 일반적인 자침보다 약하게 침을 놓은 것이지만 이 또한 침을 여러 번 맞는 것을 염려한 것이다. 散鍼에 대해서는 영조 17년(1741년) 9월 25일 기사에서는 의관 피세린이 頭部穴에 침을 놓으면 기를 사하는 해로움이 있지만 散鍼은 해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로 속효가 있다고 하여 散鍼에 대해서는 의관들마다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³³⁾ 散鍼이 아닌 일반적인 자침의 有瀉無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鍼無補法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조 23년(1747년) 9월 4일 기사에서는 영조의 어머니가 전날 출혈이 과다했던 상황에서 침을 맞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영조가 의관들과 논의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의관 정문항은 이렇게 출혈이 과다했는데 연일 침을 맞는 것에 대해서 有瀉無補라고 하여 우선 중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다³⁴⁾.

使然, 而氣下之時少愈矣. 頃者欲受鍼而中止, 客使之前, 服清熱之藥, 則少差矣. 予亦累欲爲之而不爲者, 亦慮其當暑受鍼, 或有致傷之道故耳. 台佐曰, 醫書曰, 其入如芒, 其出如車, 此言受鍼之難也. 盛夏溽理方開之時, 累度受鍼, 似爲不便, 若不受鍼, 更有添加之患, 則亦甚難便, 更與諸醫, 詳議爲之好矣. (承政院日記. 英祖 5年(1729年) 6月 1日.)

- 27) 원문은 醫官 權聖徵의 말인 “鍼則降火甚速, 火者有瀉無補矣.”인데, 뒤의 구절 중 火 글자는 문맥과 기존의 용례로 볼 때 鍼의 오기로 보인다.
- 28) 今雖有上氣之症, 大凡精彩不足者, 精血不足故也. 非鍼可愈, 或上氣熏熏時, 三里等穴鍼之亦可, 而若以精彩不足, 欲受鍼, 則不可矣. (承政院日記. 英祖 5年(1729年) 8月 2日.)
- 29) 致中曰, 鍼醫云, 鍼有瀉無補, 姑停更觀爲好云. (承政院日記. 英祖 6年(1730年) 5月 23日.)
- 30) 此則由於手腕之痰, 而素有臂部麻木之症, 內外關, 曾受同鍼, 而有效矣. 今番亦欲受鍼, 而鍼則有瀉無補之故, 初以鍼灸間欲試爲教矣. (承政院日記. 英祖 10年(1734年) 12月 20日.)
- 31) 一時鍼灸, 雖或收效, 而度數既多, 反無現效矣. 鍼孔如芒, 氣出如輪, 有瀉無補, 非長用之道. (承政院日記. 英祖 10年(1734年) 12月 20日.)
- 32) 上曰, 使卿等入侍, 欲有爲也, 而先議慈候爲可矣. 大抵連日受鍼, 實慮玉體之有傷, 疏洩且過, 予意則欲姑止之. 而慈意則以眼視之稍豁, 謂有其效, 今日欲更爲受鍼, 卿等之意如何? 與諸醫議達, 可也. 在魯曰, 連日受鍼, 恐傷玉體, 誠如下教. 且即今所進之藥, 亦是疏散之劑, 姑爲停止, 似好矣. 李箕鎮曰, 受鍼一節, 所見雖似悶迫, 而以其外治之故, 效害俱在外, 藥則治其本, 其害其效, 不可與鍼比. 鍼則或受或止, 俱無妨, 而藥則如聖教既進十貼, 合前此所御, 幾近二十貼, 藥名雖異, 而清熱則同, 似當詳審議進矣. 金應三曰, 東朝春秋已高, 氣血向衰, 不可一向受鍼, 當爲慎重. 藥則前此所進湯劑丸藥, 俱是涼劑, 不可不休養脾胃, 姑爲停止, 似好矣. 許信曰, 受鍼已至三日, 其在慎重之道, 似當姑停. 如防風·通聖等湯劑, 前頭似當連進, 姑爲停止, 休息脾胃後, 繼進好矣. 玄起鵬曰, 受鍼一節, 更觀數日, 議定爲好, 前此所進湯劑, 已至二十貼, 前頭當限百貼繼進, 今則症候稍勝, 連用疏散之劑, 終非慎重之道, 過數日後, 更議進御, 似好矣. 吳志哲曰, 臣之所見, 亦與諸醫無異矣. 姜渭聘曰, 東朝患候, 專是風熱, 雖散鍼, 已至三日, 有瀉無補, 頭部是諸陽之會, 終有厥逆之慮, 姑爲停止似好. (承政院日記. 英祖 17年(1741年) 9月 25日.)
- 33) 頭部穴鍼, 則終慮有瀉氣之害, 而散鍼則不但無害, 實有速效, 臣意則散鍼爲好. (承政院日記. 英祖 18年(1742年) 6月 28日.)
- 34) 顯命曰, 大王大妃殿氣候, 何如? 而昨日出血過多, 無乃有害於氣乎? 上曰, 氣候則有勝, 而別無所害矣. 今日又必欲受鍼, 誠悶迫矣. 顯命曰, 請令醫官, 診察聖候何如? 上曰, 何必診察乎? 顯命曰, 令兩廳首醫, 入診宜矣. 上曰, 依爲之. 金應三診曰, 左三部不數, 右三部大體好矣. 顯命曰, 有滯氣乎? 應三曰, 不滯矣. 上曰, 鍼醫皆上來. 又教曰, 昨日東朝受鍼處仰審, 則合谷絲竹, 有些青氣, 至於三里右穴, 大如錢隻而色青, 甚可悶矣, 屢度受鍼, 未有顯效, 而必欲更爲受鍼, 終難得請, 則三里及面部受鍼, 何如? 諸醫達之. 初以六穴議定, 只三里面部受鍼, 爲宜. 鄭文恒曰, 昨日出血過多, 故自外有所相確, 而連日受鍼, 有瀉無補, 今日上殿下教, 雖如此, 姑停爲好. 皮世麟曰, 昨日出血過多, 今又受鍼不安, 雖有效, 姑停宜矣. 李箕齡曰, 凡三里, 無出血之事, 而聞多出云, 且方書必忌四日八日, 停止, 宜矣. 李廷德曰, 昨日出血過多, 今又受鍼, 誠可悶矣. 姑停, 宜矣. 崔漢台[崔鎮台]曰, 方書云, 惜血如金, 昨日既多出血, 而逐日受鍼, 可悶, 姑停, 宜矣. 卞誼和曰, 非但出血過多, 血絡犯而色青, 十餘日後, 可以如常, 姑停, 宜矣. 徐文奎曰, 出血既多, 不可以連日受鍼, 姑停, 宜矣. 金鼎新曰, 向日亦以六次爲達, 即今則停止爲好矣. 顯命曰, 氣血非有異也, 有形之血, 乃無形之氣也. 血出時, 氣非不出乎? 血出多則必有一分之害, 東朝望七之年, 不可以連爲受鍼, 且一番更爲受鍼與否, 別無利害, 今日又多出血, 則何以爲之乎? 斷然停止爲宜矣. (承政院日記. 英祖 23年(1747年) 9月 4日.)

지금까지 선조부터 영조까지의 왕실의 여러 기록에서 鍼無補法 관련 기사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기사를 다뤘지만 『承政院日記』의 기록을 보면 언달아 침을 맞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든지, 침을 놓음에 정해진 혈자리 외에 임의로 혈을 추가하여 놓았을 경우 문책하는 기록, 또는 여름에 기혈이 빠져나가는 기후에 침을 맞는 것을 우려하는 기록, 침을 놓더라도 알개 놓는 散鍼을 원하는 기록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당시의 의관들에게는 이 鍼無補法의 이론이 일반적인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문집 기록에서의 鍼無補法 인식

지금까지 왕실 기록에서의 鍼無補法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문집에서의 관련 기록을 보도록 하겠다. 조선 전기의 소세양(1486~1562)이 지은 『陽谷集』에는 “鍼頭如毫芒. 氣出如車軸.”의 구절이 나오지만 자신이 앓고 있던 각기병이 몇 개의 혈에 침을 놓은 것만으로 빠르게 나았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鍼無補法이 아닌 의미로 쓰였다³⁵⁾.

이후 조선 후기의 문신인 이준(1560~1635)이 지은 『蒼石集』에는 ‘요망한 의사의 술을 쓰지 않기를 청하다(請勿用妖醫之術)’라는 제목으로 壬申年(1632)에 지은 疏가 실려 있다.

.....상으로 몸이 오랫동안 상한 결과로 임금의 몸은 편하지 않아서 화평한 약을 투여하고 조섭의 공을 쌓으면 날로 증후가 점차 완만해지고 원기는 저절로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성인의 청명한 마음이 한번 요사스런 의사의 말에 동하셔서 갑자기 침뜸의 술을 시행하십니까. 이렇게 함에도 효험이 없으면 또 燔鍼을 시행하시니 괴이하고 거짓된 일을 시간이 지나도 그침을 허락하지 않습니

다. 침뜸의 술은 사람이 있고 보함이 없어서 기를 빠져나가게 함이 갑자기 심하여 주리가 문득 허해지는데, 풍사가 이를 틈타면 식은땀이 물처럼 나오고 원기는 고달픔에 이르러 증세가 점차 중해집니다. 옛 말에 말하기를 ‘침끝은 털 끝과 같지만 기가 나오는 것이 수레바퀴의 굴대와 같다’라고 하였는데, 진실로 지극한 말입니다. 燔鍼의 술은 본래 의방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불은 살갓을 태워서 떨어지게 하여 온몸이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이 화침이 심기를 밀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³⁶⁾

이준은 이 疏에서 주로 燔鍼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지만, 鍼砭에 대해서도 사람이 있고 보함이 없어서 원기가 허해지고 증세가 중해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고, “鍼端如毫芒, 出氣如車軸.”을 언급하고 있다.

조희일(1575~1638)이 지은 『竹陰集』에는 오언고시가 나오는데, 소동파가 백세의 뛰어난 선비로서 “針頭如麥芒, 氣出如車軸.”을 언급하였고, 침이 사기를 몰아내지만 동시에 眞元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임금의 병을 치료함에 여러 의사들이 약보다는 침을 많이 사용하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결과적으로 艾灸를 그치고 약을 통해 임금의 병을 치료했다고 하였다³⁷⁾.

마지막으로 송준길(1606~1672)이 지은 『同春堂集』에는 癸卯年(1663)에 지은 宋伯興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³⁸⁾, 침을 맞는다는 사실을 듣고 “針端如毫芒. 氣出如車軸.”을 인용하여 신중해야 함을 경계하고 있다.

정리하면 17세기의 일부 사대부의 문집에서도 鍼無補法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 그 근거로 소동파의 “針頭如麥芒. 氣出如車軸.” 관련 문장을 언급하고 있다.

35) 민족문화추진회,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23 『陽谷集』, 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86:442. “鍼頭如毫芒. 氣出如車軸. 古人有斯語. 今日尤信伏. 余嘗患脚氣. 偏腫在左膝. 遍問諸名醫. 皆云風濕毒. 或云浸鹽湯. 或云服注藥. 師來鍼數穴. 渙若春氷釋. 曾未浹三旬. 消散平如削. 又能去眼翳. 鉤鍼割膜肉. 久患雀目人. 快視同明燭. 術業妙入神. 前身謬扁鵲. 今晨來告別. 杖錫還靈國. 倘能重訪否. 書此題詩軸.”

36) 민족문화추진회,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64 『蒼石集』, 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86:313-314. “.....喪次積傷之餘. 上體未寧. 投以和平之劑. 積以調攝之功. 則日候漸暖. 元氣自完. 而奈何聖人清明之心. 一爲妖醫之言所動. 遽施鍼砭之術. 於是而不效. 則又試之以燔鍼. 惟誕之事. 踰時越月. 不許停止. 鍼砭之術. 有瀉無補. 泄氣暴甚. 腠理輒虛. 風邪乘之. 虛汗如漿. 以致元氣爾然. 症勢漸重. 古語云. 鍼端如毫芒. 出氣如車軸者. 誠至論也. 燔鍼之術. 本非醫方之所言也. 火屑墮肌. 四體怛然. 況此火鍼所挨心氣之動. 又何如也”

37) 민족문화추진회,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83 『竹陰集』, 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86:233-234. “文章固有神. 妙用資達識. 東坡百世士. 立言曉愚惑. 針頭如麥芒. 氣出如車軸. 砭肌以驅邪. 眞元隨喪斷. 俗人昧此義. 唯君信之篤. 至尊久違豫. 諸醫集內局. 各問所主意. 多針少言藥. 君乃竭底蘊. 滿紙寫惻愴. 用針如用兵. 宜戰不宜瀆. 須思補泄間. 利害勢懸百. 乘論絕詭隨. 志不負所學. 一語動天聽. 良劑即進服. 嗟嗟玉體上. 輒止艾灸酷. 天容日敷映. 榮衛漸充復. 吾王庶無疾. 競賀膺萬福. 或云聖人候. 難以常情測. 陰陽自慘舒. 夫豈容人力. 吾知調變功. 在人能斟酌. 微燭助太陽. 尺土裨喬嶽. 葆眞和乃應. 養正妖自熄. 試觀今日效. 精誠可褒錄. 黃岡產肉芝. 歲採煮得熟. 睿眷旣云隆. 分司慎所擇. 州伯攝大將. 輪忠誓報國. 少年業文字. 相携共場屋. 世態變如雲. 舊情重似玉. 且莫恃壯氣. 念茲衰病劇. 術非盡調護. 身何離枕席. 公餘撥閑鉞. 拙詞應披讀. 爲問主人翁. 幾閱如渠客.”

38) 민족문화추진회,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107 『同春堂集』, 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86:83. “偶作此行. 到后賴失君美. 到離岳失子孫兄弟. 到大谷聞徐姑訃. 蒼黃而歸. 人事一至於此. 尙復何言. 謂與君相會. 而竟至交臂. 亦堪一歎. 聞方受針. 鍼端如毫芒. 氣出如車軸. 古人所戒. 不可不知也.”

3. 중국의 鍼無補法 기원과 전개³⁹⁾

鍼無補法의 내용은 『黃帝內經』의 여러 곳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黃帝內經』에서는 여러 편에서 허증에서는 자침할 수 없으며 침보다는 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자침을 할 때에도 정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경계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후 鍼無補法에 대해 명확히 문장으로 언급한 것은 『丹溪心法·拾遺雜論』(1481)에서 최초로 보이는데, “침법은 모두 사하는 것이고 보함은 없다. 오묘함은 그 혈기를 압사시키면 아프지 않은 것에 있기 때문에 침을 놓는 곳마다 모두 괜찮다.”⁴⁰⁾라고 하였다. 『丹溪心法』은 직접적인 주단계의 저작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주단계의 이론을 후인들이 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단은 주단계와 동향인 義烏人으로서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우단은 『醫學正傳·醫學或問』(1515)에서 침법의 ‘有瀉而無補’에 대해 논하였다⁴¹⁾. 이 뒤에 나온 의서인 이천의 『醫學入門』(1575)에서는 글의 인용서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대체로 허손, 위급한 병, 오래된 병은 모두 침을 놓은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내용을 덧붙인 것을 제외하고는 『醫學正傳』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므로⁴²⁾ 이를 인용했을 수 있다.

청대에 들어서는 침구서인 『鍼灸集成』(1874)의 卷一에서 『醫學入門』을 인용하고 있다⁴³⁾.

주단계의 영향을 받은 또다른 의가로 왕기를 들 수 있다. 그는 『鍼灸問對』(1530)에서 『黃帝內經』의 ‘瀉必用方’과 함께 ‘補必用員’ 또한 사법의 범주 안에서 논하면서 九鍼의 용법은 사법만 있다고 하였다. 이 글을 인용서적의 표기 없이 서준보가 『古今醫統大全·附錄』(1556)에서 약간의 가감을 하여 기술하였고, 명대의 침구학 전문서적인 『鍼灸大成·

補遺』(1601)에서 역시 인용표기 없이 『古今醫統大全』의 글을 인용하였다. 앞의 『醫學正傳』의 내용이 전해지는 과정과 차이가 있다면 『古今醫統大全』과 『鍼灸大成』에서 『鍼灸問對』를 인용한 내용이 附錄, 補遺라는 범주 안에서 기술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저서의 주 내용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참고내용으로 언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청대의 침구서인 『鍼灸逢源』(1817)에서도 卷三의 뒤쪽인 問疑의 범주에서 이 내용이 인용되고 있다.

정리하면 주단계의 鍼無補法은 우단과 왕기의 글로써 19세기 청대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주목할 만한 것은 청대의 종합의서인 『醫宗金鑑』에서는 이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醫宗金鑑』이 기존 의서의 침구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서 『丹溪心法』, 『醫學正傳』, 『鍼灸問對』의 내용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鍼無補法을 삭제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관찬 종합의서에 내용이 없다는 것은 곧 이 이론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4. 조선 후기의 鍼無補法 수용 과정

지금부터 조선에 鍼無補法이 수용된 과정을 살펴보고 하겠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침구전문서로는 조선초기 세종 때 『鍼灸擇日編集』이 있는데, 『黃帝內經』의 자침 금기에 대한 내용 등도 찾아볼 수 있지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침구를 시행하는 日의吉凶에 중점을 둔 책이며 鍼無補法의 직접적인 원 출처인 『丹溪心法』 이전의 책이다.

이후의 조선의 침구전문서로 유성룡의 『鍼灸要訣』(1600)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醫學入門』의 내용들을 발췌하여 경혈을 중심으로 계통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鍼灸要訣』의 서문의 마지막에 “동과가 말하기를 ‘침끝은 가는 털과 같이

39) 이 내용은 「鍼無補法의 의미에 대한 考察 : 黃帝內經의 補瀉法을 중심으로」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감하여 기술하였다.

40) 元·朱震亨 撰, 王英, 竹劍平, 江凌坤 整理. 『丹溪心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328. “鍼法渾是瀉而無補, 妙在押死其血氣則不痛, 故下鍼隨處皆可.”

41) 明代 虞搏 編.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15. “或問 鍼法有補瀉迎隨之理, 固可以平虛實之證. 其灸法不問虛實寒熱, 悉令灸之, 其亦有補瀉之功乎? 曰 虛者灸之, 使火氣以助元陽也, 實者灸之, 使實邪隨火氣而發散也, 寒者灸之, 使其氣之復溫也, 熱者灸之, 引鬱熱之氣外發, 火就燥之義也. 其鍼刺雖有補瀉之法, 予恐但有瀉而無補焉. 經謂瀉者迎而奪之, 以鍼迎其經脈之來氣而出之, 固可以瀉實矣, 謂補者隨而濟之, 以鍼隨其經脈之去氣而留之, 未必能補虛也. 不然, 內經何以曰, 無刺熇熇之熱, 無刺渾渾之脈, 無刺漉漉之汗, 無刺大勞人, 無刺大饑人, 無刺大渴人, 無刺新飽人, 無刺大驚人. 又曰, 形氣不足, 病氣不足, 此陰陽皆不足也, 不可刺, 刺之, 重竭其氣, 老者絕滅, 壯者不復矣. 若此等語, 皆有瀉無補之謂也, 學者不可不知.”

42) 李梴 編著. 『新校 編註醫學入門』上. 서울: 대성문화사, 1994:306. “或問 鍼有補瀉迎隨之理, 固可以平虛實之證, 其灸法不問虛實寒熱, 悉令灸之, 其亦有補瀉之功乎.(丹溪凡灸有補瀉, 若補, 火艾減至肉, 瀉, 火不要至肉, 便掃除之, 用口吹風主散.) 曰 虛者灸之, 使火氣以助元陽也, 實者灸之, 使實邪隨火氣而發散也, 寒者灸之, 使其氣之復溫也, 熱者灸之, 引鬱熱之氣外發, 火就燥之義也. 其鍼刺雖有補瀉之法, 予恐但有瀉而無補焉. 經謂 瀉者迎而奪之, 以鍼迎其脈之來氣而出之, 固可以瀉實也. 謂補者隨而濟之, 以鍼隨其經脈之去氣而留之, 未必能補虛也. 不然, 內經何以曰無刺熇熇之熱, 無刺渾渾之脈, 無刺漉漉之汗, 無刺大勞人, 無刺大饑人, 無刺大渴人, 無刺新飽人, 無刺大驚人. 又曰 形氣不足, 病氣不足, 此陰陽皆不足也, 不可刺.(凡虛損危病久病, 俱不宜鍼.) 刺之重竭其氣, 老者絕滅, 壯者不復矣. 若此等語, 皆有瀉無補之謂也, 學人玩之.”

43) 실제로는 『醫學入門』을 인용한 『東醫寶鑑』을 인용한 것이다. 『鍼灸集成』 卷1, 卷2를 살펴보면 『東醫寶鑑』, 『鍼灸經驗方』을 인용표기 없이 베낀 것으로 보인다.

만 기가 나가는 것은 수레의 굴대와 같다.'라고 하였으니 나는 아울러 들어서 세상의 경락에 밝지 못하면서 침과 뜸을 시행하는 자들에게 경계한다."44)라고 하여 유성룡은 소동과의 글을 인용하여 글을 맺고 있다.

소동과가 말했다고 하는 “鍼端如毫芒. 氣出如車軸.”은 앞에서 왕실기록과 사대부의 문집에서도 여러 번 인용하였다. 실제로 소동과의 시 ‘贈眼醫天彥若’에서는 “鍼端如麥芒. 氣出如車軸.”이라고 되어 있다. 東坡詩集註에서 王十朋이 이 구절에 『素問』의 “鍼頭如芒, 氣出如篋.”을 주석으로 달았는데, 현재의 『素問』에서는 이 구절이 없다. 단 南朝의 宋代 范曄의 『後漢書·郭陳列傳』에 “故隄潰蟻孔, 氣洩鍼芒”의 원문에 章懷太子 李賢이 덧붙인 주석에도 “黃帝素問曰 鍼頭如芒, 氣出如篋也.”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단순한 오기로 보이지는 않는다.

인용의 문제를 차치하고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유성룡이 『鍼灸要訣』을 쓴 목적은 잘못된 침의 사용으로 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醫學入門』은 『醫學正傳』을 인용하여 鍼無補法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 책에서 『鍼灸要訣』이라는 책을 만든 유성룡 또한 鍼無補法의 내용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비록 『鍼灸要訣』에서 관련 문장을 직접적으로 찾기는 어렵지만, 앞에서 선조실록의 기사를 통해 유성룡이 『鍼灸要訣』을 만들기 전에도 이미 鍼無補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의 대표적인 의서인 『東醫寶鑑』의 「鍼灸篇」에서는 침의 보사를 논하는 부분에서 네 항목을 설명하고 있다. ‘鍼補瀉法’에서 여러 가지 보사법을 논한 뒤로 ‘用鍼宜審逆順’에서 『靈樞·根結』을, ‘五奪勿用鍼瀉’에서 『靈樞·五禁』을 인용하여 자침의 보사시의 주의점을 논하였고 마지막의 ‘鍼法有瀉無補’에서 『醫學入門』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45).

1644년에 나온 허임의 『鍼灸經驗方』을 살펴보면 본문의 「鍼灸法」에서 가장 먼저 ‘침이 사람은 있지만 보함은 없다’는 것을 역시 논하고 있으므로46), 『東醫寶鑑』과 비슷한 맥락이면서 더욱 단적으로 鍼無補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문에서 『奇效良方』의 방법을 조금 변형시킨 보사법을 논하고 있는데, 보법의 목적을 ‘保其眞氣’라고 설명하고 있다. 保는 지킨다는 의미로서 추가로 더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후 효종의 명으로 조선 팔도 명의들의 침구와 약의 처방을 수집하여 송시열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三方撮要』 또한 『鍼灸經驗方』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47). 『三方撮要』에서 침구에 대한 내용은 운기의 내용 다음에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오수혈 등 혈자리와 관련된 내용이고 침구 이론에 대한 설명은 「鍼灸略說」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되어 있다. 略說이란 말 그대로 간략하게 설명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언급한 내용은 이 당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鍼灸略說」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내용 중 앞의 침과 약의 차이를 드러내며 시작하는 글은 이 책만의 독창적인 내용으로 보인다. 나머지 내용은 모두 『鍼灸經驗方』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내용 중 뒤의 내용과 세 번째 보사법의 내용은 『鍼灸經驗方』의 서문에서 순서를 바꾸면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내용은 침법과 뜸에 대해 논했는데, 『鍼灸經驗方』의 「鍼灸法」의 앞부분에서 인용한 것이다. 따라서 『三方撮要』에서도 鍼無補法의 인식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의 鍼無補法은 의서 방면에서 『醫學入門』의 영향을 받아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醫學入門』은 鍼無補法 내용은 『醫學正傳』에서 대부분 인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醫學正傳』은 숙대전(1746)에 따르면 조선 후기 의과와 의학, 침구의의 취재의 시험과목이었으며 『醫學入門』 또한 순조 31년(1831년) 의과의 背講 과목으로 선정될 만큼 중요한 책이었다. 따라서 이 책들에 나오는 鍼無補法 내용이 조선 후기 의사들에게 수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 조선의 의사로서 침구의 명의로 알려진 김덕방이 있다. 김덕방의 저서는 비록 남아있지는 않지만 일본에서 『鍼灸極秘傳』(1778)이 간행됨으로 인해 그의 침구 이론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책의 제목에서 나타난 대로 극

44)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8「鍼灸要訣」. 서울:驪江出版社. 1994:330. “東坡云. 鍼端如毫芒. 氣出如車軸. 余并舉之. 以戒世之不明經絡而喜施鍼灸者云.”

45) 허준 지음,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하동:동의보감출판사. 2005:2285-2286. “鍼刺雖有補瀉之法, 予恐但有瀉而無補焉. 經謂瀉者, 迎而奪之, 以鍼迎其經脈之來氣而出之, 固可以瀉實也. 謂補者, 隨而濟之, 以鍼隨其經脈之去氣而留之, 未必能補虛也. 不然, 內經何以曰, 無刺熇熇之熱, 無刺渾渾之脈, 無刺漉漉之汗, 無刺大勞人, 無刺大飢人, 無刺大渴人, 無刺新飽人, 無刺大驚人. 又曰, 形氣不足, 病氣不足, 此陰陽皆不足, 不可刺. 刺之則重竭其氣, 老者絕滅, 壯者不復矣. 若此等語, 皆有瀉無補之謂也. 凡虛損, 危病, 久病, 俱不宜用鍼. 『入門』”

46)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8「鍼灸經驗方」. 서울:驪江出版社. 1994:496-497. “內經曰 無刺大勞, 無刺大飢, 無刺大飽, 無刺大醉, 無刺大驚, 無刺大怒人. 又曰形氣不足者, 久病虛損者, 鍼刺則重竭其氣. 又曰鍼入如芒, 氣出如車軸. 是謂鍼之有瀉無補也.”

47) 연구책임자 안상우, 감수 김남일. 『국역 삼방촬요』 3.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7:455.

비로 전한다는 내용의 목록 중 『鍼治大意』에서 “침을 써야 하는 증상과 피를 내야 하는 증상은 서로 비슷하다. 뜸을 떼야 하는 증상은 침을 쓰거나 피를 내야 하는 증상과는 천양지차가 난다. 그 상반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대개 허한 사람에게는 뜸을 뜨고 실한 사람에게는 침을 쓰거나 피를 내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⁴⁸⁾라고 하여, 뜸과 침을 대비하면서 일반적으로 뜸은 보법이 있고 침은 사법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당시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의 의사들도 鍼無補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5. 조선 후기 鍼無補法 인식의 원인

아쉽게도 현재 『承政院日記』는 인조 이전의 기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선 전기에 鍼無補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朝鮮王朝實錄』에서 受鍼이라는 용어가 선조부터 검색되는 것을 본다면 그 이전에는 왕에게 침을 놓는 행위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鍼無補法의 인식은 조선 중기 이후 침과 약 모두를 왕에게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시행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두 치료법 모두 왕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침은 시행할 때 시각적으로 직접 왕의 몸에 침습하는 것이므로 더욱 신하들에게 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같은 시기의 청대와 비교하면 차이를 보이는 지점인데, 일기 형식의 기록과 의안의 차이는 있지만, 청대궁정의안에는 처방의 치료가 주를 이루고, 침으로 치료한 기록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⁴⁹⁾.

鍼無補法에 대한 내용이 『後漢書』나 소동파의 시와 관련된 주석에, 그 당시의 의서에도 찾을 수 없었던 “鍼頭如芒, 氣出如筐.”, “鍼端如麥芒. 氣出如車軸.” 등의 문장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책들을 접할 수 있었던 조선의 사대부들에게는 일반적인 인식이었을 것이다.

또한 儒醫 유성룡이 중국의 儒醫인 이천의 『醫學入門』에 나오는 鍼無補法 내용을 수용하여 여러 의관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醫學入門』의 내용을 인용한 『東醫

寶鑑』, 『鍼灸經驗方』 등을 통해 조선 후기 의관들에게도 이러한 鍼無補法은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잡았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인조는 침술을 자주 시행하면서 신하들의 반대를 받았고, 뒤의 왕인 효종은 중기를 앓다가 鍼醫 신가귀의 침이 혈락을 범하면서 승하하게 되는데⁵⁰⁾, 따라서 이후에는 왕실에서 침술을 시행하는 것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鍼無補法의 인식은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承政院日記』에서 受鍼을 검색하였을 때 인조부터 영조까지는 많은 기록이 있다가 정조부터 급감하는데 정조부터는 鍼無補法의 인식이 더욱 심해져 이후로는 왕의 치료법으로 그다지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III. 결론

조선 후기 鍼無補法에 대한 인식은 조선의 침구 역사에서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왕실기록에서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영조의 기록에서 나타나고, 사대부의 문집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鍼無補法의 인식은 조선 중기 이후 침과 약 모두를 왕에게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시행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鍼無補法에 대한 내용은 『丹溪心法』에서 직접 언급하기 이전부터 『後漢書』나 소동파의 시와 관련된 주석에 나타나 있었으므로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서는 『醫學入門』의 영향을 받아 『鍼灸要訣』,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三方撮要』 등에서 꾸준히 이어졌다. 鍼無補法의 내용을 담고 있는 『醫學入門』과 『醫學正傳』이 의과와 의학, 침구학의 취재의 시험과목이었으므로 조선 후기 의사들에게 일반적으로 수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침구 분야에서 나타난 鍼無補法의 인식에 대한 초기의 연구로서 향후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48) https://medicclassics.kr/books/87/volume/1#content_1 “鍼スヘキ症ト血ヲ取ルヘキ症ハ相似タリ。灸スヘキ症ト針スヘキ症・血ヲ取ルヘキ症トハ雲壤ノ隔ナリ。其相反スルヲ知ヘシ。大槩虛者ニハ灸シ・實ニハ鍼シ・亦血ヲ取ト心得ヘシ。”

49) 陳可冀, 周文泉 等 編著. 『清宮醫案研究』.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06.

50) 上問受鍼當否於申可貴, 可貴對曰: “腫毒流注於面部, 亦將成膿, 必須受鍼出惡血, 然後可以收效矣”, 柳後聖以爲: “不可輕試.” 王世子力請進水刺後, 更議受鍼, 上却之. 命可貴執鍼, 仍令提調一人入侍, 都提調元斗杓先入殿內, 提調洪命夏, 都承旨趙珩追後直入. 上已受鍼, 血出鍼穴, 上曰: “微可貴, 病幾危矣.” 血湧不止, 蓋鍼犯血絡. 命提調以下退出, 促進血竭等藥以塗之, 猶不止, 提調及醫官等, 罔知所爲. 上候漸向危急, 藥房進清心元獨參湯. 百官驚邊咸會于闔門外, 俄而上命召三公及末時烈, 宋浚吉藥房提調, 承旨, 史官及諸臣, 卽趨入, 伏于御床下, 上已大漸, 王世子號躡於楹外. 時已午矣. (朝鮮王朝實錄. 孝宗 10年(1659年) 5月 4日.)

참고문헌

1. 허준 지음.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하동:동의보감출판사. 2005.
2. 민족문화추진회.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23, 64, 83, 107. 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86.
3. 元·朱震亨 撰. 王英, 竹劍平, 江凌圳 整理. 『丹溪心法』.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6.
4. 明代 虞搏 編. 『醫學正傳』. 서울:成輔社. 1986.
5. 李梴 編著. 『新校 編註醫學入門』 上. 서울:대성문화사. 1994.
6.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 38 「鍼灸要訣」, 「鍼灸經驗方」. 서울:驪江出版社. 1994.
7. 연구책임자 안상우, 감수 김남일. 『국역 삼방촬요』 3.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7.
8. 陳可冀, 周文泉 等 編著. 『清宮醫案研究』.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06.
9. 오준호, 차웅석, 김남일. 「『承政院日記』를 통해 본 鍼灸擇日 활용 방법」. 한국의사학회지. 2009;22(1):15-24.
10. 정지훈. 「『승정원일기』를 통해 살펴본 조선 왕실의 阿是穴 활용」. 한국의사학회지. 2021;34(1):75-82.
11. 김동울, 고대원, 김현경, 차웅석, 안상우. 「肅宗의 中脘穴 受灸事 연구 : 승정원일기 약방기록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5;28(4):121-137.
12. 오준호, 강연석, 차웅석, 김남일. 「李馨益 燔鍼의 계통과 성격」. 대한한의학회지. 2009;30(2):46-55.
13. 李炳幸. 「鍼 無補法論에 對한 反證論」. 대한한의학회지. 1970;7(1):33-35.
14. 윤기령, 백유상, 장우창, 정창현. 「鍼無補法の 의미에 대한 考察 : 黃帝內經의 補瀉法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8;31(2):141-153.
15.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2022.10.22.)
16. 국사편찬위원회. (2015)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2022.10.22.)
17. 한국한의학연구원. (2014) “鍼灸極秘傳” https://mediclassics.kr/books/87/volume/1#content_1/ 한의학교전DB(2022. 10.25.)